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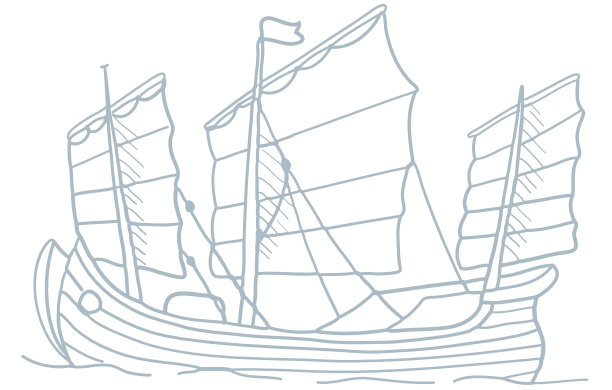
경북도서관 9월 북큐레이션

읽기예보 : 오늘 읽음, 내일 맑음

오늘 읽고 내일을 맑게

세월이 지나도 가치가 있는 옛 책을 읽으며
빛나는 내일을 준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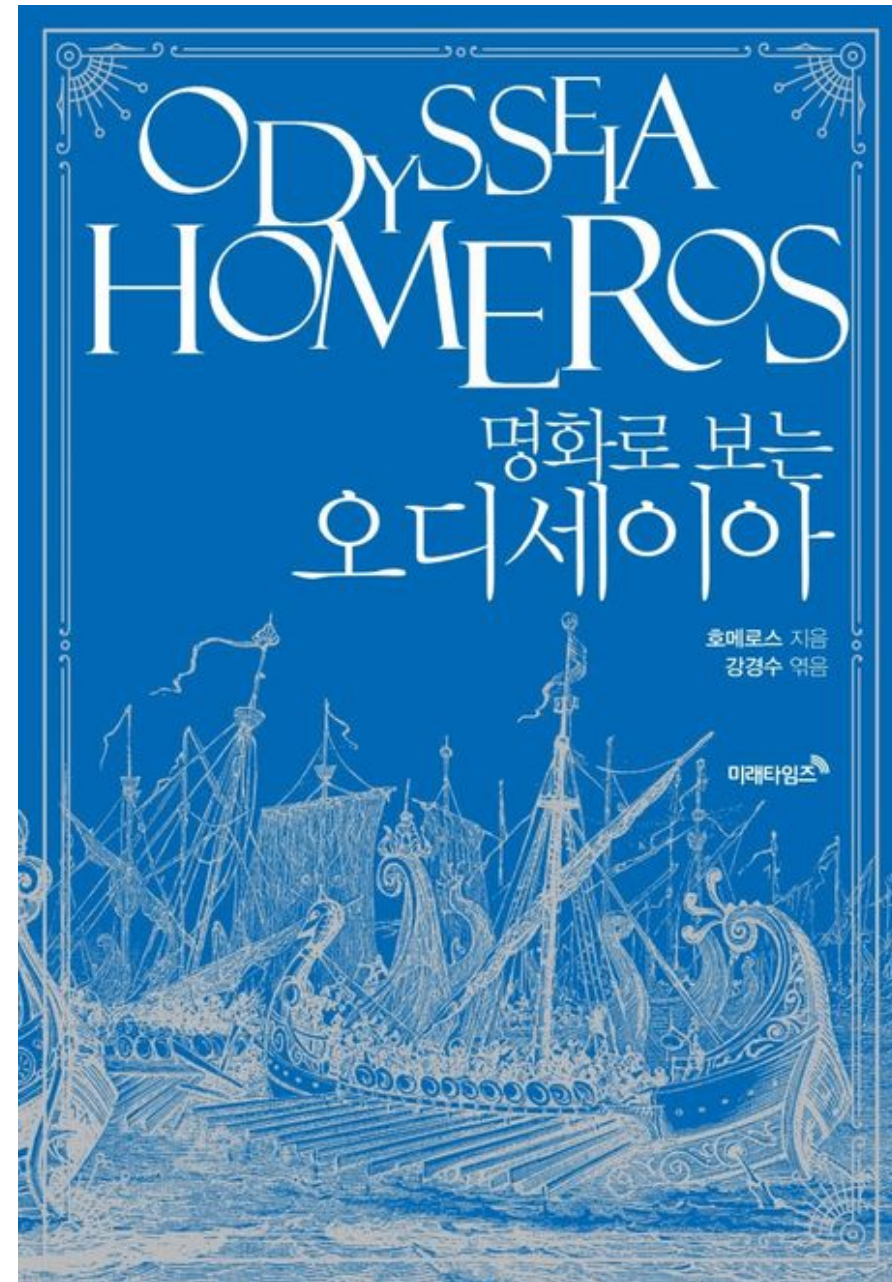




영화로 보는 오디세이아

호메로스 지음, 강경수 엮음/미래타임즈

트로이 전쟁의 영웅 오디세우스의 모험과
인간 드라마를 생생하게 담은 서사시입니다.
풍부한 신화적 상상과 영화를 통해
서양 문학과 예술의 뿌리를 한눈에 만날 수 있는 작품입니다.



p 538

아버님, 제가 왔습니다.

바로 아버님이 밤낮없이 그리던 제가 왔습니다.

아버님, 이제 눈물을 닦으시고 그만 울음을 그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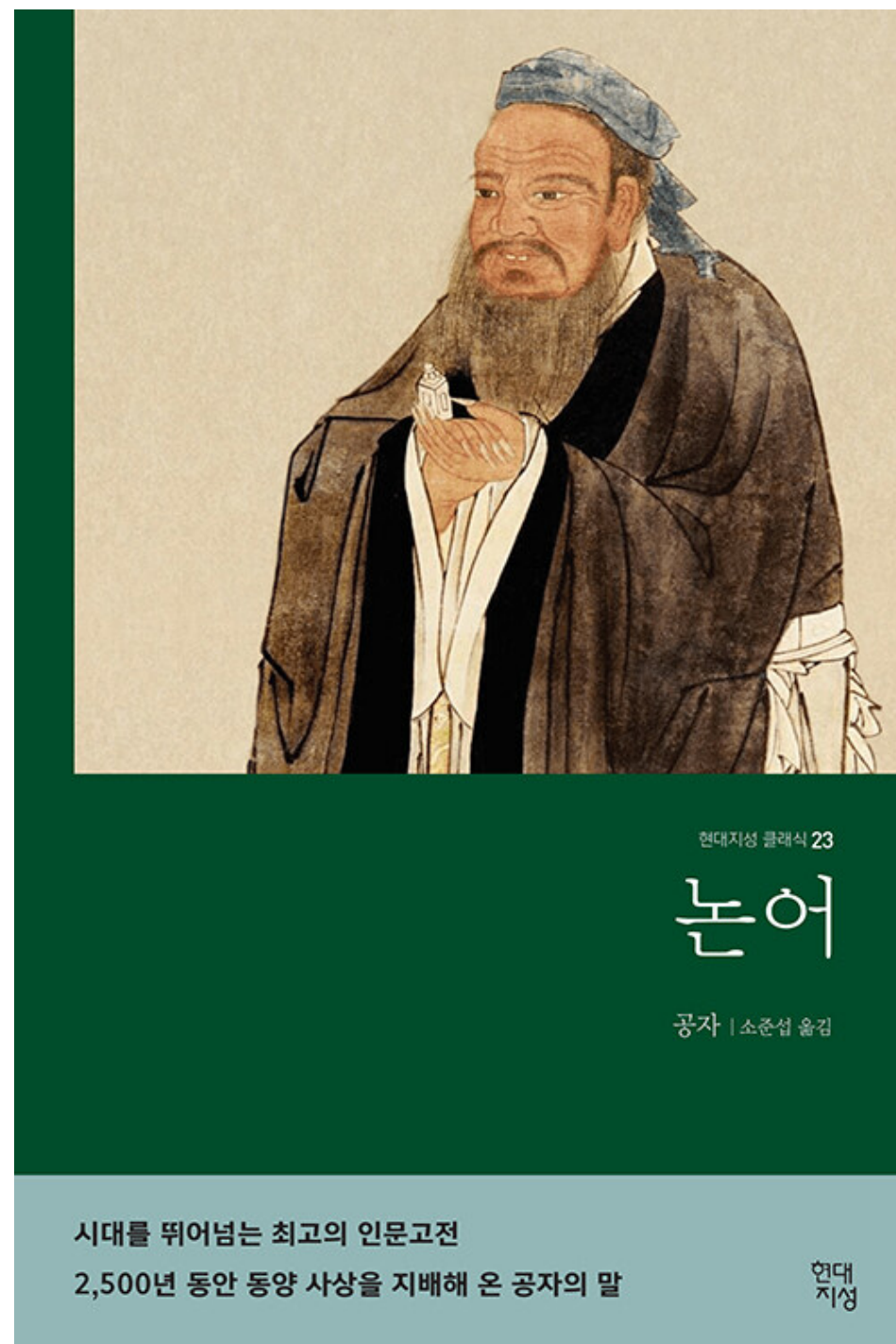
일반

논어

공자 지음, 소준섭 옮김/현대지성

공자의 가르침과 언행을 기록한 유교경전으로,
긴 세월 동안 동양사상의 뿌리가 되어 온 고전입니다.

인(仁)의 실현과 사람다움을 가르치며
현대에도 변치 않는 삶의 지혜를 전해줍니다.



p 234

먼저 힘을 다하여 노력하라. 그 연후에 비로소 어떤 성과가 있게 된다.

이것이 곧 덕을 높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스스로의 사악함을 제거하고, 다른 사람의 사악함을 비판하지 말라.

이것이 자신의 사악한 마음을 수양하는 길이 아니겠느냐?

일시의 분노로 자신의 안위와 자기의 가까운 사람들까지 연루시켜서는 안 된다.

이것이 미혹이 아니겠느냐?

일반

양화소록

강희안 지음/놀와

명화 『고사관수도』로 유명한 조선시대 문신 강희안의 저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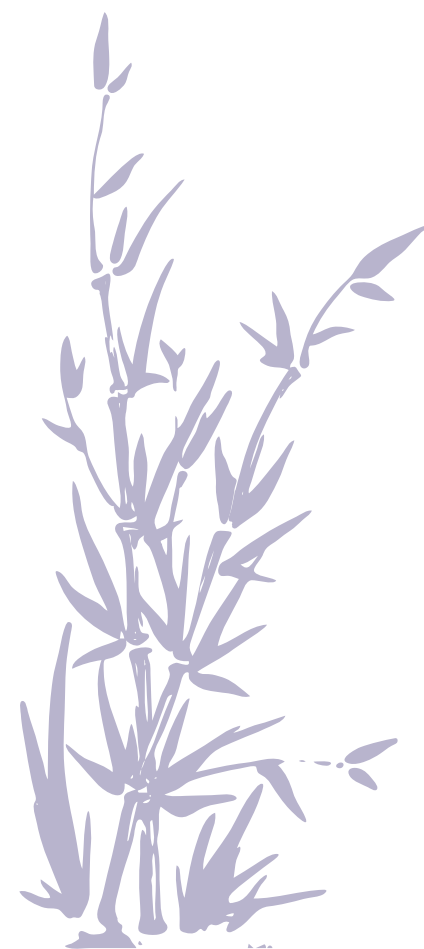
우리나라 최초의 전문 원예서로,
꽃과 나무의 재배를 통해 올바른 삶의 자세를 반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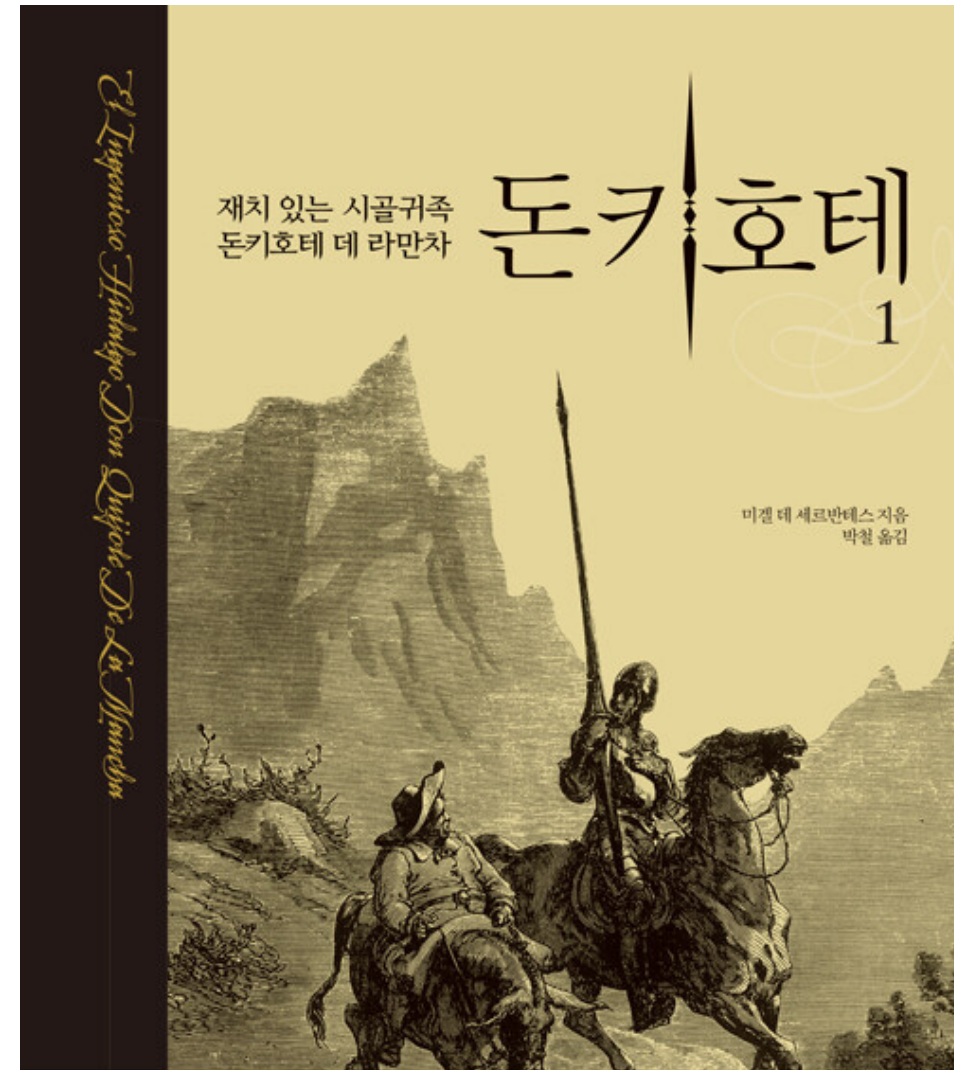
p 64

한양에서 꽃을 기르는 사람들은 서향의 높은 운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또한 기르는 방법도 알지 못해서
돌보고 감상한지 몇 년 지나지 않아 말라 죽게 한다.

...

모든 존재는 각각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도 없는 산에서 혼자 피었다가 지더라도 끝내 알려지지 못하니,
어찌 한스럽고 슬프지 않겠는가.





박철 한국외대 명예교수
스페인 국왕이 수여하는
2024 세르반테스 국제학자상
에네(N)상 아시아 최초 수상!

SIGONGSA

일반

돈키호테



미겔 데 세르반테스

한 신골 노신사의 유쾌하고 엉뚱한 모험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기사였다는 망상에 빠져버린 그는 약자와 레이드를 지키고
악을 물리치겠다는 기사의 신념을 내세우며 막무가내로 행동합니다.
최초의 근대소설로 평가되며, 전세계적으로 널리 사랑받는 고전입니다.

p 277

"저기 얼룩말을 타고 머리에 황금 투구를 쓴 기사가
우리 쪽으로 오고 있는 게 보이지 않는단 말이냐?"
"제 눈엔 제 당나귀처럼 잿빛 당나귀를 타고 머리에는 뭘지 모르지만
번쩍거리는 걸 엿고 오는 웬 남자일 뿐인데요."
"그게 바로 맘브리노 투구란 말이다."

일반

택리지

이중환 지음, 안대회·이승용 외 옮김/휴머니스트

조선시대 실학자인 이중환이 직접 전국을 답사하면서 기록하고 분석한
한국 최초의 인문지리서입니다.

18세기 조선의 역사·경제·사회·교통 등 여러 학문 분야에
귀중한 자료를 제공하며 현대에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빠어난 부동산 서적! 경제서! 여행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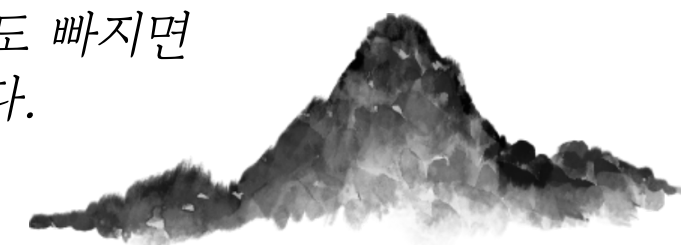
어디 사는 게 좋을지 제시하는 부동산 서적이면서, 산수가 빼어난 곳을 안내하는 여행서이고,
각 지역의 물산과 교통을 소개한 경제서이자, 지역 전설을 채록한 구비문학의 보물창고!

조선 최고의 베스트셀러,
이제야 본 모습을 찾다!

Humanist

p 227

터를 잡고 살 만한 땅을 고르는 조건은
지리가 최우선이고, 생리가 다음이다.
다음은 인심이고, 그다음은 산수이다.
네 가지 조건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살기 좋은 땅이 아니다.



아동

훈민정음 해례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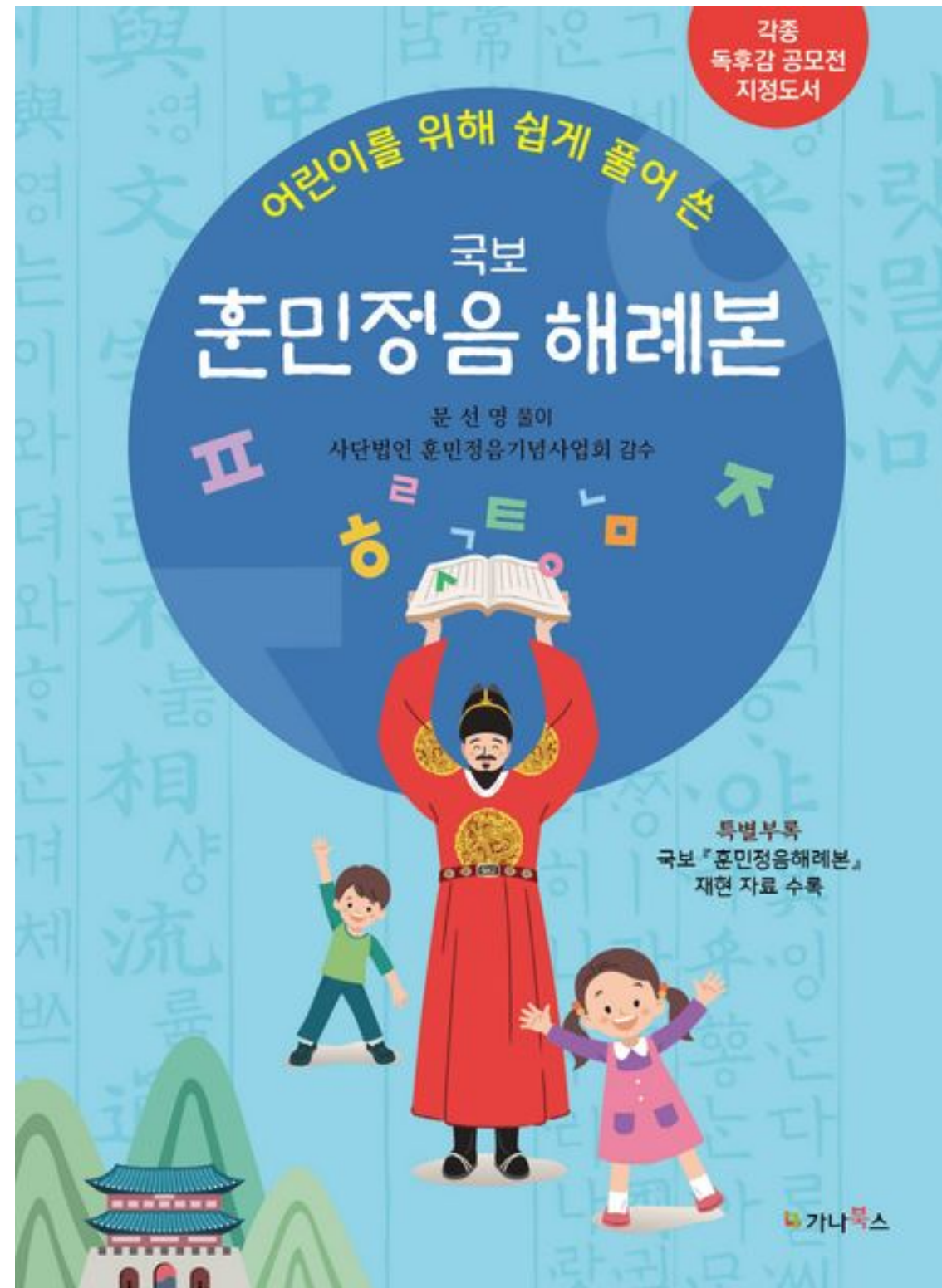
문선영 풀이/가나박스

옛날 우리 조상들은 우리 글자가 없어서 한자를 빌려 써야 했어요.
 세종대왕께서 우리에게 맞는 글자, 훈민정음을 직접 만드시고
 그 원리와 사용법을 쓰신 책이 바로 훈민정음 해례본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 한글이 얼마나 훌륭한 글자인지 알 수 있고
 우수한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느낄 수 있어요.



p22

글자를 모르는 백성들이 우리 조정을 향해서
 억울함 같은 것을 말로 전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마침내 자기의 뜻을 능히 말과 글로써 펼치지 못하는 사람이 많았다.
 내가 이를 어여삐 여겨서, 새로운 스물여덟 글자를 만들었으니,
 사람들이 쉽게 익혀서 날마다 편하게 쓰기를 바랄 뿐이다.



아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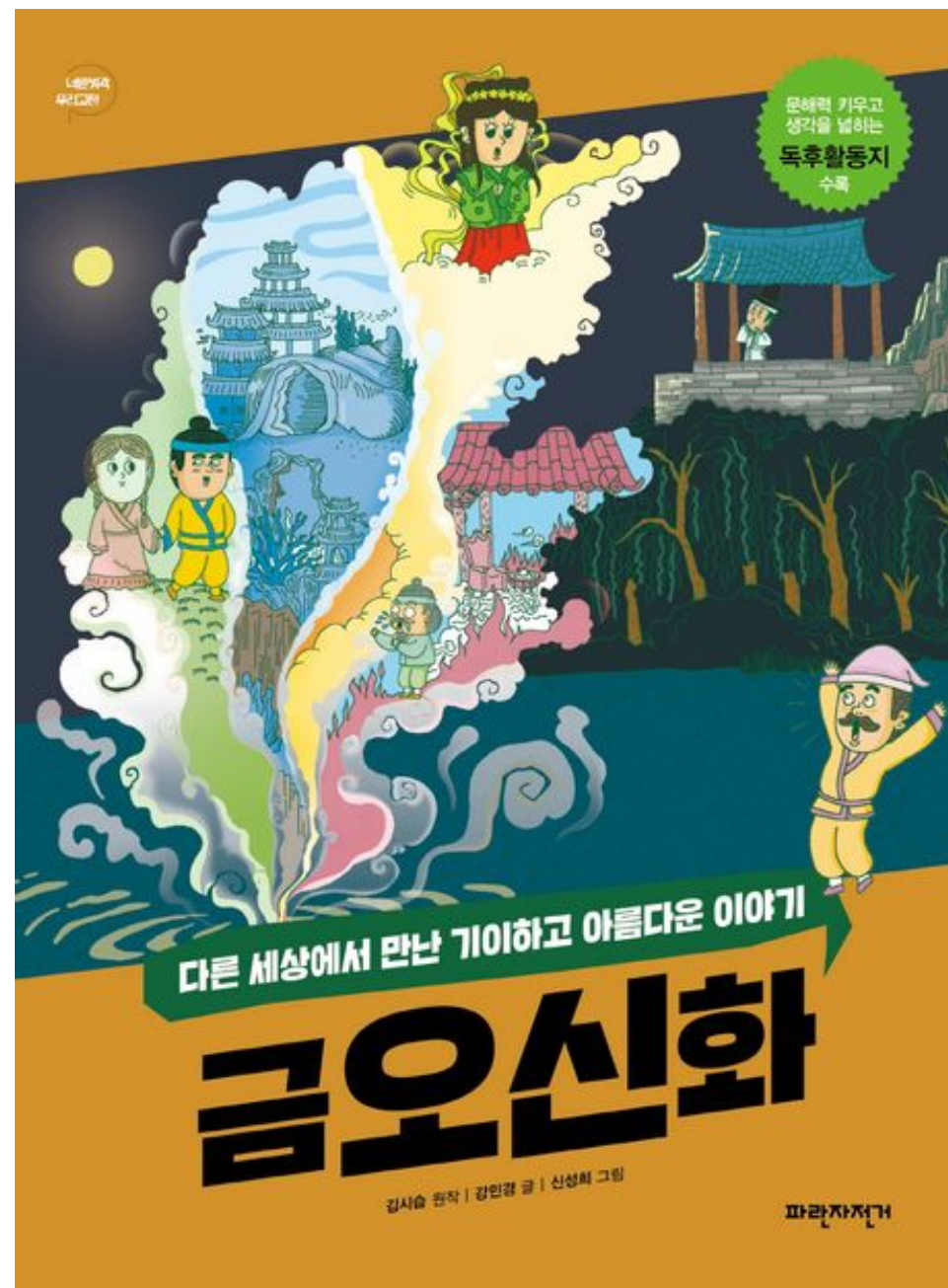
금오신화

김시습

조선시대 문학 천재였던 김시습이 지은 책이에요.
재미있고 신비한 모험과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통해
옛날 사람들의 생각과 꿈을 엿볼 수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소설책이에요.

p49

그대여! 달나라에서 당신은 난새를 타던 선녀가 되고,
신선들이 사는 산에서는 비 뿌리는 선녀가 될 것ियो.





아동

톰 아저씨의 오두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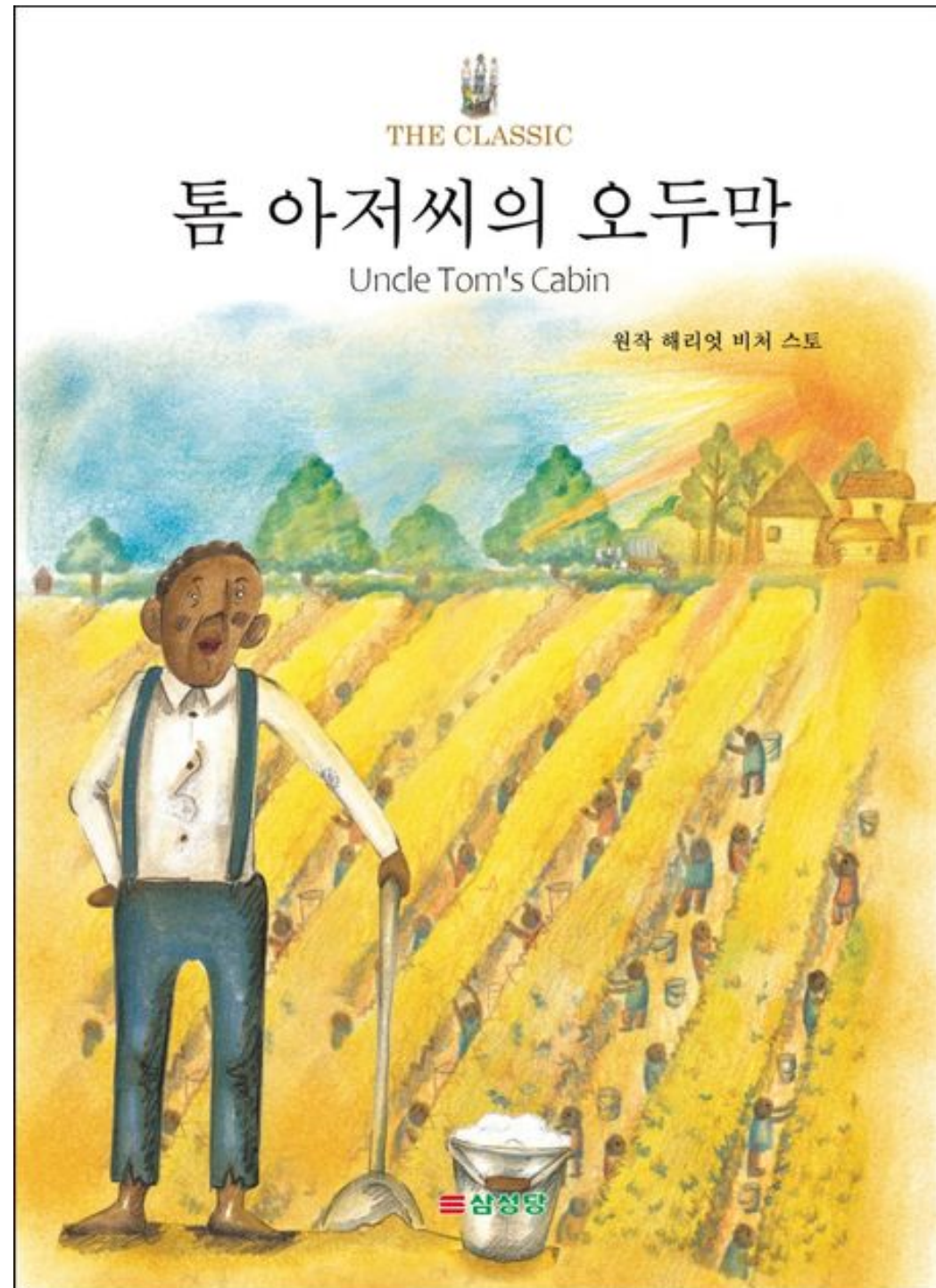
해리엇 비처 스토 지음/삼성당

19세기 미국을 배경으로, 톰 아저씨와 주변 사람들의
삶과 갈등을 그린 이야기예요.

노예제와 차별 같은 사회 문제 속에서 인간의 존엄과 연민,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의 중요성을 생각하게 해 줍니다.

p136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은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입니다.
그러니 톰 아저씨를 본받아 참되고 바르게 살아가십시오.





바위나리와 아기별

마해송 글, 정유정 그림/길벗어린이

바닷가 바위에 외롭게 피어난 꽃 바위나리와
그런 바위나리를 위해 하늘에서 내려온 아기별의
아름답고 안타까운 우정과 사랑 이야기예요.
가슴아픈 시련을 겪지만, 서로를 향한 순수한 마음은 변치 않아요.



p11

여러분은 바다를 들여다본 일이 있습니까?
바다는 물이 깊으면 깊을수록 환하게 밝게 보입니다.

아동

80일간의 세계 일주

쥘 베른 글, 박선주 옮김/크레용하우스

멋진 신사 필리어스 포그는 단 80일 만에 세상을 한 바퀴 돌 수 있다고 친구들과 내기를 해요. 하인 장 파스파르투와 함께 기차, 배, 심지어 코끼리까지 이용해 전 세계를 가로지르는 여정 속에서 예상치 못한 사건들과 사람들을 만나게 되지요. 도전의식과 모험심을 불러일으키는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p17

지금은 100년 전에 비해 세계를 10배는 더 빨리 돌 수 있으니 지구가 줄어들었다고 해도 되겠지.

